

## [ 오피니언 ]

## 다산포럼

남영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때 화폐 경제의 생산성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까?" 이 질문은 앤빈 토풀러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독자들에게 한 것이다. 좀 부연하자면 이렇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행동 규칙 등의 문화를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경제가 생산적일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부모의 기능을 부모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 대신하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면서도 온전히 부모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사회는 미래 경제 체계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한국어는 한국 경제의 기반

그러면서 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말했다. 그는 "그중 언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일꾼이 어떻게 생산적이겠는가?"

## 언어의 경제학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전수하여 아버지가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걱정을 했다. 첫째는 '한국의 부모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는지', 둘째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이다.

첫째 걱정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지금보다는 고급한 말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급한 단어, 욕설 등을 멀리하고, 무의미한 말을 줄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생활을 해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언어생활과 행동양식을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걱정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단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때그때 몸소 실천하거나 아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이다.

## 부모 역할 못하면 사회적 손실

이런 점에서 나는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불고 있는 영어 쏠림 현상에 우려를 하고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한국 문화를 전수해 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문화가 한국 사회와 생활 다른 외국으로 자녀를 보내어 영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게 될 것인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한 결과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겪어야 할 갈등과 불화, 그리고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들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날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국어문화운동 회장·국어단체연합회 어상담 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매칭펀드’ 지역균형 발전 발목 잡는다

정부가 자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자자체 간 대응자금(매칭펀드)을 경쟁시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전남 등 자자체 재정에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 매칭펀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자자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방비 부담이 사업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고 성과 보수와 평가 관리비 기여금 등 금융권의 '꺾기' 형태로 번질에서는 곤란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자체의 살림을 더 조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거의 매칭펀드 공모사업이다. 각 자자체는 이를 국책사업의 과급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도나도 유효성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역 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자자체를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은가.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매칭펀드를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 간 과열경쟁은 중복투자와 인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

## 동사무소 통폐합·경계조정 서둘러라

광주시내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하는 주민수 격차가 최대 12배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시내 91개 행정동 가운데 서구 풍암동사무소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3천733명이지만 광산구 동곡동은 296명에 불과하다. 광산구 첨단2동과 북구 용봉동, 건국동, 일곡동, 남구 효령동 등은 직원 1인당 담당인구가 3천명을 넘지만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洞)이 수두룩하다.

동간 인구 격차는 심각하다. 광산구 본령동은 2천623명인 반면 광산구 신가동은 5만1천676명으로 19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자치구에서도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 직원수도 가장 적은 곳은 7명, 가장 많은 곳은 17명으로 들판쪽이다.

경계조정이나 동사무소 통·폐합은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자자체에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및 동간 인구 격차를 줄여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824년 존 퀸시 애덤스와 앤드루 제이슨이 격돌한 7대 대통령 선거 때다. 그러나 당시 조사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 버그라는 작은 마을에 국한된 한정적인 것었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앤프리드 랜든이 맞붙은 1936년 대선 때였다. 당대 제일의 여론조사기관 '리터리리 다이제스트'

는 루스벨트의 패배를 예측했다. 실제 개표 결과는 62.5% 대 37.5%로 루스벨트의 승리. 리터리리 다이제스트의 위신은 추락했고 신생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전국적으로 떠올랐다. 갤럽의 조사는

56%대 44%로 실제와 거의 비슷했다.

갤럽은 오차개념, 표본추출 등 과학적 통계기법을 적용, 조사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짧지 않다. 조선 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인 '공법(貢法)'의 도입 여부를 여론에 물었다. 호조(戶曹)는 5개월에 걸쳐 17만2천648명

호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카케로는 "민족 민족 정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여론만 큼 애매한 것은 없다"고 푸념했다.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에 의해 뽑은 한국식 정당정치를 바라보며 여론조사의 허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 법조칼럼



오수원

조선왕조시대에 서당 선생에게 보수로 주던 곡식을 학재(學債)라고 하고, 강미(講米), 공란(貢糧), 학세(學稅), 훈채(訓債)라고 불렸다. 그 액수는 보통 초학자는 1년에 벼 5필(반석), 그 이상의 재학생들은 1심(10필)을 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수업료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듯하다.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배우기 위해 학재를 너무 비싸게 지출하는 이들이 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분이 있다.

변호사 개업을 한 다음의 일이다.

## 학재(學債)

어느 날 오전, 법정의 변호사 좌석에서 '안'을 의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증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과도한 연체 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번체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보증인이 자신의 능력에 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한도도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은 아마 아들보다도 더 나아가 어렸을 사람을 불렀다. "자신은 쓴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비 얻어 피운 적 없이 도장 한 번 잘못 찍은 죄로 30여 년 교직에 종사해 모든 돈 모두 날리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동안의 물가나 환폐 가치를 고려하면 그분의 보증금액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증을 하였다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낭패는 면하였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변호사〉

## 기 고



서나숙

엊그제 가들의 문답이라는 쳐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한낮의 땅은 뜨겁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장마가 끝난 뒤 잦은 비와 뜨거운 맑은 눈과 밤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쳐 수확을 앞둔 있는 힘없는 촌로들의 한숨으로 주름살은 더욱 깊어간다.

다음달이면 벌써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추수한 곡식들로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송편을 짓고 가족들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

획이다.

벌초작업은 농협청년부와 영농회원들이 담당하며 벌초비용은 묘의 위치와 크기, 분묘 수에 따라 다르나 1기당 평균 3만원~5만원을 받는다.

벌초를 한 뒤에는 벌초 전후 전경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rea.co.kr)에 올려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합평농협을 비롯한 16개 농협에서는 벌초 뿐만 아니라 석물·조경·이장까지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는 고객들은 전화 한통화면 만사

## 농협에서 벌초대행 합니다

이기도 하다.

요즘은 사회가 혁가족화 되고 젊은 신세대들의 가족구성도가 높아지면서 명절연휴는 가족단위로 여가를 보내는 휴식시간으로 할애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양지바른 곳에 모셔놓은 일부 조상님들의 산소에는 온갖 잡초들이 수북한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빠서 성묘를 못 오신 분, 연고자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 해외 이민가신 분, 원거리 거주 등으로 부득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 이들에게 산소관리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농협에서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남농협은 다음달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내 21개 시군의 70개 지역농협에서 조상 묘를 대신 벌초해주고 관리해 주는 산소관리 대행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

오케이다.

산소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실시 농협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고 농협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계좌입금 후 대행서비스가 제공된다.

벌초대행으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마을 청년부나 영농회에서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농촌복지사업에 써여진다.

마음의 고향인 농촌은 고령화로 칠순 노구(老嫗)의 어른신들이 논과 밭을 지키고 있다. 이들의 눈에 온갖 잡초에 덮여있는 조상들의 산소는 어떻게 보일까?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이번 추석에는 많은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찾아 정겨운 어른신들과 조상들을 찾아 뵙고 뿐만 아니라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갈망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여성복지팀 과장〉

## 신용대출 해주고 신용등급 깎는 은행 '황당'

경우인가.

불론 금전이 필요한 입장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고마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깎인다는 사실은 안다면 고객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은행측이 진정으로 우량고객을 챙길 요량이라면 대출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옳다. 신용사회에서 자신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모른채 나중에 진짜로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가 하락한 신용도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다면 얼마나 말나 황당하겠는가.

▲최계숙·광주 남구 원산동

## 경비업체 직원 채용, 결격사유 강화해야

최근 은행으로부터 '고객님은 우량고객이신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또 카드사에서 보낸 우량고객 대상 혼금서비스 대상이라는 메시지도 받아왔다.

그런데 우수고객 대상 신용대출을 종용하는 은행들이 대출받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은행들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우수고객 대출 마케팅으로 신용대출 받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깎는다는 것이다. 신용이 좋아 신용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받으라고 해놓고 신용도를 내리는데 이게 무슨

불운 금전이 필요한 입장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고마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깎인다는 사실은 안다면 고객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은행측이 진정으로 우량고객을 챙길 요량이라면 대출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옳다. 신용사회에서 자신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모른채 나중에 진짜로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가 하락한 신용도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다면 얼마나 말나 황당하겠는가.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